

## 지난 4년간의 학회지 “신경정신의학” 심사 평가보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간행위원

오병훈 · 권준수 · 남궁기 · 김승현 · 지익성 · 김창윤  
하규섭 · 박원명 · 김성곤 · 오강섭 · 김정범 · 이수정  
정한용 · 이창욱 · 박용천 · 이영문 · 김세주 · 이병욱

### Four Years Reviewer Evaluation Reports of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Byoung Hoon Oh, MD, PhD, Jun Soo Kwon, MD, PhD, Kee Namkoong, MD, PhD, Seung Hyun Kim, MD, PhD, Ik Seung Chee, MD, PhD, Chang Yoon Kim, MD, PhD, Kyoo Seob Ha, MD, PhD, Won Myong Bahk, MD, PhD, Sung Gon Kim, MD, PhD, Kang Seob Oh, MD, PhD, Jung Bum Kim, MD, PhD, Soo Jung Lee, MD, PhD, Han Yong Jung, MD, PhD, Chang Uk Lee, MD, PhD, Yong Chon Park, MD, PhD, Young Moon Lee, MD, PhD, Se Joo Kim, MD, PhD and Byung Wook Lee, MD, PhD

*Editorial Board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Seoul, Korea*

Four Years Reports of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during 2001 to 2005 were evaluated by 18 Editorial Board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We investigated the articles to specific fields and rejection rate etc. by different section chiefs. Although several problems concerning review time duration and rejection guideline issues indicated but generally all reviewer processes proved relatively clear and concise criteria. Through these objective and systematic evaluation processe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will develop a good journal.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5; 44(5):537-544)

KEY WORDS :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 Reviewer evaluation.

## 서 론

신경정신의학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1962년 4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단 한번의 결간도 없이 현재까지 학회회원은 물론 신경정신의학 관련 종사자들에게 지식과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1662년 창간 이후 1970년, 1968년, 1999년과 2003년도에 새롭고 참신한 표지로서 신경정신의학의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0년도의 KoreaMed등재 및 학술진흥재단의 후

보지 등재는 신경정신의학의 위상을 한단계 높여 주었으며, 향후 Index Medicus나 SCI 등재를 위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회지의 등재는 그 어느 때 보다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4년간의 학회지 평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살펴봄, 보다 나은 학회지 “신경정신의학” 으로서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지난 4년간의 학회지 ‘신경정신의학’ 현황

2002회기에 ‘신경정신의학’은 40권 6호부터 41권 5호까지 전체 6권이 발간되어 총 11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동 회기 접수된 논문은 143편으로 이 중 108편이 게재되었다. 35편의 논문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다.

2003회기에 ‘신경정신의학’은 41권 6호부터 42권 5호까지 전체 6권이 발간되어 총 9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

접수일자 : 2005년 8월 30일 / 심사완료 : 2005년 9월 11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Byoung Hoon Oh,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verance Mental Health Hospital, 696-6 Tanbul-dong, Gwangju, Gyunggido 464-100, Korea

Tel : +82.31-797-5745, Fax : +82.31-763-5745

E-mail : drobh@chol.com

다. 동 회기 접수된 논문은 115편으로 이 중 72편이 게재되었다. 43편의 논문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다.

2004회기에 ‘신경정신의학’은 42권 6호부터 43권 5호까지 전체 6권이 발간되어 총 9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동 회기 접수된 논문은 98편으로 이 중 69편이 게재되었다. 29편의 논문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다.

2005회기에 ‘신경정신의학’은 43권 6호부터 44권 4호까지 전체 5권이 발간되어 총 8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현재 동 회기 접수된 논문은 88편으로 이 중 35편이 게재되었다. 16편의 논문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37편은 심사 중이다.

### 학회지 발전을 위한 공영회 및 워크샵

#### 학회지 발전을 위한 공영회

2002년 4월 27일(토)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심포지움으로 열렸다. 특강으로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한상완 교수의 “학회지 편집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단기 및 장기발전위원회 위원장인 남궁기, 권준수 회원의 “설문조사 결과 및 추후 학회지 발전 안 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E-mail을 통한 학회지 발전을 위한 설문지 조사 결과와 함께 장, 단기 발전계획에 대한 토론 및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학진, SCI 등재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sup>1-4)</sup>

#### 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한 Workshop

학회지 ‘신경정신의학’의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한 Workshop이 2002년 11월 21일(목) 서울대학교 임상의학 연구소에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실무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덕우 선생님과 ISI 한국지사의 Associate Manager이며, Training과 Education을 담당하고 있는 황호정 선생님의 특강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sup>5)</sup> 이 Workshop을 통해서 2003년 후보지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명료화되었다.

#### 학회지 영문 잡지 및 온라인 잡지 발간을 위한 Workshop

학회지 장기 발전을 위한 영문 잡지 및 온라인 잡지 발간을 위한 Workshop이 2003년 7월 11일(금) 오후 1시 30분에서 7시까지 가톨릭의대 의과학 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Dr.John C Roberts, Project Director의 특강이 있었고, 영문 잡지 발간 추진계획에 대한 권준

수 장기발전 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영문 잡지 발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진단방사선과 교수인 임정기 교수님의 ‘Korean Journal of Radiology의 SCI 등재 경험’과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요구하는 좋은 학술지 및 온라인 학술지의 발전 방향’에 대한 특강과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2004년도 ‘신경정신의학’의 영문 잡지 발간(2회 영문 잡지 발간) 계획으로 구체적인 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sup>6-8)</sup>

#### 학회지 심사평가보고 및 온라인 학회지 투고심사 시스템 개발

학회지 장기 발전을 위한 심사평가보고 및 온라인 잡지 발간을 위한 Workshop이 2004년 1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에서 7시까지 가톨릭의대 의과학 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이덕우 선생님의 “학술진흥재단 등록을 위한 계속 평가작업”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또한 영문 잡지 발간 구체적 추진현황에 대한 권준수 장기발전 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김주한 정보위원회 위원장의 “온라인 학회지 투고심사 시스템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학회지 심사평가보고에 대한 발표가 영문자문(이호영), 통계자문(김동기), 각 부분평가(각 Section Chief)순으로 진지한 토론 속에 진행되었다.<sup>9-11)</sup>

#### 온라인 학회지 투고심사 시스템 공영회

전북대학교내 진수당에서 열린 본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05년 4월 23일(토) 오전 10시 10분부터 1시간동안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회지 투고심사 시스템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주한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차경렬 정보위원의 완성된 온라인 학회지 투고심사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온라인 시스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 신경정신의학 심사 평가 분석(2002~2005)

각 Section별로 진행된 발표내용을 가능한 여과없이 정돈하면 다음과 같다.

#### Section 1. 기초, 생물정신분야

- 약물연구 : 3
- 약물 중례보고 : 2
- 유전연구 : 29
- 생물 : 8

심사논문 : 43편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    | Reviewer 1 | Reviewer 2 |
|----|------------|------------|
| 1  | 가          | 가          |
| 2  |            | 조건부        |
| 3  | 가          | 가          |
| 4  | 조건부→가      | 가          |
| 5  | 조건부→가      | 조건부→가      |
| 6  | 가          | 조건부→가      |
| 7  | 조건부→가      | 조건부→가      |
| 8  | 가          | 가          |
| 9  | 가          | 가          |
| 10 | 가          | 조건부→가      |
| 11 | 불가         | 불가         |
| 12 | 불가         | 조건부        |
| 13 | 가          | 불가         |
| 14 | 조건부→가      | 조건부→가      |
| 15 | 가          | 가          |
| 16 | 가          | 조건부→가      |
| 17 | 불가         | 불가         |
| 18 | 불가         | 가          |
| 19 | 불가         | 가          |
| 20 | 가          | 가          |
| 21 | 조건부→가      | 가          |
| 22 | 조건부        | 불가         |
| 23 | 가          | 가          |
| 24 | 조건부        | 가          |
| 25 | 조건부→가      | 저자수정       |
| 26 | 조건부→가      | 저자수정       |
| 27 | 저자수정       | 저자수정       |
| 28 | 불가         | 불가         |
| 29 | 저자수정       | 저자수정       |
| 30 | 가          | 조건부→가      |
| 31 | 조건부        | 불가         |
| 32 | 조건부        | 불가         |
| 33 | 조건부        | 불가         |
| 34 | 불가         | 불가         |
| 35 | 불가         | 조건부        |
| 36 | 조건부→가      | 조건부→가      |
| 37 | 조건부→가      | 가          |
| 38 | 자료없음       | 불가         |
| 39 | 조건부        | 불가         |
| 40 | 조건부→가      | 조건부→가      |
| 41 | 조건부→가      | 가          |
| 42 | 조건부→가      | 조건부        |
| 43 | 재재불가       | 저자수정       |

중 합

1) 통과율/거부율 : 적절한 것으로 보임.

2) 심사위원별 : 적절함.

심사위원 구성

분자생물학에 관한 논문이 많아져서 이 분야의 심사위원 보강이 필요함.

심사평

비교적 상세하게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적절한 것으로 보임.

Section 2. 정신분열병 분야

심사위원별 논문 편수(심사위원 : 20인)

| 심사위원 | 가 | 조건부 | 불가 | Total |
|------|---|-----|----|-------|
| A    | 8 | 1   | 1  | 10    |
| B    | 7 | 1   |    | 8     |
| C    | 1 | 7   |    | 8     |
| D    |   | 1   | 3  | 4     |
| E    | 3 |     | 1  | 4     |
| F    | 2 |     | 1  | 3     |
| G    |   | 3   |    | 3     |
| H    | 3 |     |    | 3     |
| I    | 2 |     |    | 2     |
| J    | 1 |     |    | 1     |
| K    | 1 |     |    | 1     |
| L    | 1 | 1   |    | 2     |
| M    | 1 |     |    | 1     |
| N    |   |     | 1  | 1     |
| O    | 1 |     |    | 1     |
| P    |   | 1   |    | 1     |
| Q    |   |     | 1  | 1     |

논문 심사 불일치 정도 : 27편

| A \ B | 가       | 조건부    | 불가     |
|-------|---------|--------|--------|
| 가     | 10(37%) | 9(33%) | 2( 7%) |
| 조건부   |         | 1( 4%) | 3(11%) |
| 불가    |         |        | 2( 7%) |

- 표에서 보듯이 한 심사위원이 '가' 인데 다른 심사위원의 평가가 '불가' 인 경우는 27편중에서 2편, '조건부' 인데 '불가' 인 경우 3편이었으며, 한 심사위원이 '가' 또는 '조건부' 로 판정했는데 다른 위원이 '불가' 로 판정한 경우는 27편 중 5편으로 19%이었음.

**Section 3. 기본장애 분야**

**심사결과 종합**

|    | Reviewer 1 | Reviewer 2 |
|----|------------|------------|
| 1  | 가          | 가          |
| 2  | 가          | 가          |
| 3  | 가          | 조건부→가      |
| 4  | 가          | 조건부→가      |
| 5  | 가          | 가          |
| 6  | 가          | 조건부→가      |
| 7  | 가          | 조건부→가      |
| 8  | 조건부→가      | 조건부→가      |
| 9  | 조건부→가      | 조건부→조건부→가  |
| 10 | 불가         | 불가         |
| 11 | 불가         | 불가         |
| 12 | 불가         | 조건부        |
| 13 | 가          | 조건부→가      |
| 14 | 조건부→가      | 조건부→가      |
| 15 | 가          | 조건부→가      |
| 16 | 조건부→가      | 조건부→조건부→가  |
| 17 | 조건부→가      | 조건부→가      |
| 18 | 조건부→가      | 조건부→가      |
| 19 | 조건부→가      | 조건부→가      |
| 20 | 불가         | 불가         |
| 21 | 불가         | 불가         |
| 22 | 가          | 불가→가       |
| 23 | 가          | 조건부→가      |
| 24 | 가          | 조건부→가      |
| 25 | 불가         | 불가         |
| 26 | 가          | 가          |
| 27 | 조건부→가      | 조건부→가      |

- 통과율/거부율 : 적절한 것으로 보임.

1) 심사자 일치율

- 모두 27편의 논문에 대하여 1차 심사에서 17편 (63%), 2차 심사에서 26편(96.3%)로 심사자간 일치율이 높음.

2) 거부율

- 전체 27편 중 6편이 게재불가로 심사되어 거부율은 22.2%였다.

**심사결과 분석**

1차 심사에서 “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4편(14.8%)이며, 1차 심사에서 한명 혹은 두명 모두에게서 “조건부” 판정을 받고 2차 혹은 3차에서 “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17편(63%)으로 심사는 까다롭게 하고, 충분히 수정되었을 경우 게재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Section 4. Addiction 분야**

1) 총 28편이 심사 대상이었으며 이중 10편이 적어도 한 심사위원으로부터 ‘불가’ (35.7%), 10편은 ‘조건부’ 판정을 받았으며(35.7%), 반면 나머지 8편은 두 심사위원 모두로부터 ‘가’ 판정을 받았다(28.6%). 2002년에서 2003년의 2년간 중독 분야이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불가 판정률이 30~40%인 점을 감안할 때, 2002년에서 2005년까지의 이러한 거부율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2)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모두에서 가를 받았던 논문이 3편, 조건부를 받았던 논문이 4편, 불가를 받았던 논문은 4편으로 두 심사자의 심사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가 39.3%로서 비교적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아쉬운 점으로는 두 심사위원의 판정이 가와 불가로서 차이가 났었던 논문이 1편 있었다.

3) 불가 판정을 받은 10편의 논문을 심사했던 심사위원은 총 20명(10편x2명=20명)으로 이중에서 불가 판정을 내린 위원이 전반기에는 2명으로 국한되어 심사위원간 불가 판정률의 차이가 컸으나, 후반기에는 논문 5편에서 5명의 위원이 불가 판정을 내림으로서 심사위원간의 거부율의 차이는 현저히 개선되었다.

4) 심사 대상이었던 28편을 심사한 심사위원 56명 모두 심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잘 지적하였으며, 3차 심사까지 이루어진 논문이 1편 있는 등 성실한 심사와 함께, 특히 불가 판정된 논문일수록 구체적인 지적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심사가 깊이 있게 잘 진행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심사위원의 심사평도 큰 문제없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심사가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심사 대상이었던 28편을 위해 의뢰된 심사위원 총수는 56명으로, 심사위원별 심사건수는 김대진, 이영문, 임기영, 홍경수, 안석균위원 각각 1편씩, 신영철위원 2편, 김재진위원 3편, 이영식, 오동열, 한진희, 이병욱위원 각각 5편에서 7편씩, 남궁기위원 9편, 김성곤위원 15편이었다. 전반기에는 심사위원별로 심사 건수가 차이가 많은 경향이 있었으나 후반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개선되었다.

6) 현재 논문 투고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실행 중에 있다. 앞으로는 전산화를 이용함으로써 여러 각도에서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되어 더 정확하고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회지의 더 큰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ection 5. 불안, 정신헌체장애 분야**

1) 불안, 정신헌체장애 분야 심사 논문 수는 총 56편이며, 불안장애 분야 21편, 정신헌체 분야 35편이었다. 심사 결과 12편(21.4%)이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가/조건부, 조건부/불가로 두 명의 심사위원이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경우가 26편(46.4%)으로 나타났다.

2) 심사위원들의 주된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불가의 경우 연구의 필요성, 대상자의 선정, 표본수의 문제, 연구도구의 타당성 문제, 통계적용의 문제,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문제, 문장의 영어식 표현, 참고문헌오류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2) 조건부의 경우 실험대상 및 대조군의 선정 문제, 통계적용의 문제, 용어선택의 문제, 참고문헌의 문제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3) 그 외에 도표작성, 문장기술, 영문초록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3) 제 언**

1) 심사위원간에 배당된 논문 수의 차이가 크고, 일부 위원들에게 너무 많이 편중되었다.

2) 심사위원간에 심사결과 일치도가 낮은 편이다.

3) 심사위원간에 열성 및 역량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심사위원 수를 줄이고 충분한 보상을 주는 방안.

4) 심사위원들의 열성 및 심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사비를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

5) 투고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회원들에게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겠다.

**Section 6. 소아청소년 분야**

심사논문 표본수 : 37편

전체 게재 불가 : 13편(35%)

일차 심사 결과

- 가 : 14편(38%)
- 조건부 : 12편(32%)
- 불가 : 11편(30%)

**심사평가 세부내용**

| 심사평가  | 내 용     | 1차 심사 | 2차 심사 |
|-------|---------|-------|-------|
| 2차 심사 | 불가      | 11    | 2     |
|       | 불가-불가   | 1     |       |
|       | 불가-조건부  | 8     |       |
|       | 불가-가    | 2     |       |
| 조건부   |         | 12    |       |
|       | 조건부-조건부 | 3     |       |
|       | 조건부-가   | 9     |       |
| 가     | 가-가     | 14    |       |
| 합계    |         | 37    |       |

**문제점과 특기사항**

1) 심사위원 사이에 심사 논문 편수가 크게 차이

2) 심사위원 사이에 ‘불가’ 판정을 한 논문의 비율 크게 차이 : 가/불가의 판단에 개인 사이의 차이가 클 가능성

3) 두 심사위원의 판정 차이:

- 두 심사위원이 각각 ‘가’와 ‘불가’를 매긴 경우 : ‘불가’ 논문 11편 가운데 2편

- 9편은 ‘조건부-가’의 평가를 받음

- 11편 가운데 2편은 2차심사에서 한쪽 심사위원으로부터 ‘불가’ 평가를 받음.

- ‘조건부’ 논문 가운데 두사람 모두 ‘조건부’를 매긴 경우 : 12편 가운데 3편

-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간 평가가 일치되는 경우는 18편(49%)임.

4) 심사요지의 분량은 5행 미만으로부터 50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5) 심사요지 내용 : 포괄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적과 수정 사항을 언급한 경우로 다양했음. 대부분 불가 판정 내린 심사 요지는 구체적이고 상세함.

6) ‘불가-가’처럼 심사위원 사이에 의견차가 큰 경우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심사요지는 유사하지만 ‘가’, ‘불가’를 판정하는데 의견이 갈림.

7) 2005년도 심사 논문의 심사 평가는 이전에 비하여 심사위원 사이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점검표의 활용과 워크숍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음.

**개선방안**

1) ‘가/불가’ 기준이 개인마다 차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에 관한 워크숍 등을 지속할 필요 있음.

2) ‘가/불가’를 정하는 기준과 우선순위 등 학회지 공통이 방침과 표준을 정하여 심사위원에게 공지하는것이 도움될 것임.

**Section 7. 기질성 및 노인분야**

- 2002년 ~ 2004년 : 35편
- 2002년 : 13편
- 2003년 : 11편
- 2004년 : 7편
- 2005년 : 4편

**심사위원간 심사결과 일치도**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심사된 논문 35편 중 심사결과가 ‘가/가’인 경우가 4편, ‘조건부/조건부’인 경우가 9편, ‘불가/불가’인 경우가 1편으로 심사가 일치된 논문은 총 14편(40%)이다. 따라서 비교적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다.

**평가 및 개선 방안**

- 1) 불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33%에서 37%로 올라감.
  - 심사기준이 강화된 것도 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2) 심사위원 사이의 심사편수 차이
  - 간행위원회에서 심사횟수 제한
- 3) 판정기준이 객관적 점수보다 주관적 판단이 많고 이에 따라 심사위원간 일치율이 떨어짐. 심사항목을 점수화하여 가, 조건부, 불가 점수를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됨.

**Section 8. 정신치료분야**

**논문 편수 : 10편**

- 1) 한국인의 삶의 의미에 관한 분석연구
 

평가결과 가-1명, 조건부-1명

논문자체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 2인 모두 긍정적이었고 공통적으로 투고규정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심사위원 1인은 내용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며 참고하기를 권하였음.

저자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음.
- 2) 자아초월적 정신치료(I) : 정의, 발달과정 및 한국적 전망

3) 자아초월적 정신치료(II) : 몇가지 치료접근 방법들  
심사위원은 이 두 가지 논문을 하나로 압축 요약할 것을 주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의논해주기를 원하였고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는 조건부의 평가결과를 내렸는데 내용상의 이해하기 힘든 점들과 저자의 판단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체적으로 두 편의 논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며 저자의 수정을 요구하였음.

4) 집단정신치료 : 집단역학  
종설이므로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였음.

영어의 번역에서 세 심사위원 모두 용어번역상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다른 의견제시만 있었음. 평가결과는 3인 모두 “가”로 저자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하였음.

5) 한국어판 Canners 부모 및 교사용 평가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2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은 언급없이 “가”로 평가하였고, 한명의 심사위원은 내용상 미비한 부분을 지적한 후 “불가”로 평가하였음.

6) 정신과와 신경과

평가결과 심사위원 A는 “가”로, 심사위원 B는 평가를 유보하였음.

연구논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review 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글이어서 원저가 아닌 종설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였음. 학술지논문으로 실을 것인가에 관해서 의논이 있었던 글임. 글 자체는 큰 무리가 없고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을 선택하였음.

7)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유형화에 관한 예비적 연구

평가결과 두 심사위원 모두 “가”였고, 저자 수정 후 게재 가능하다 하였음.

두 심사위원 모두 내용과 방법의 시의 적절성을 인정하였고 다만 참고문헌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과 표기 방법의 오류를 지적하였음. 심사에 문제가 없었음.

8) 일본군 위안부 성적노예 생존자들의 정신의학적 후유증에 관한 연구

평가결과 심사위원 A는 “불가”로 수정후 재투고, 심사위원 B는 “조건부”로 수정을 요구하였음.

두 심사위원 모두 A4용지 2장 또는 3장에 백백이 지적사항을 기록하였고 상세히 정의껏 심사하였음. “불가”나 “조

건부"로 평가하였지만 보완하여 더 좋은 논문이 될 것을 예상하며 배척이 아닌 지지적인 입장이었음.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저자나 심사위원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가장 모범적인 평가사례였음.

#### 9)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이 대폭 수정되어 같은 평가위원들이 재심사를 하였음. 두 심사위원 모두 "가"로 게재가 가능하게 되었음. 이러한 심사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며 peer review라는 본래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저자와 심사위원 모두 수고는 하였지만 논문의 질을 확실히 검증하고 논문의 수준을 높이는 좋은 계기였음.

#### 10) 불교의 무아사상에 대한 정신의학적 이해

평가결과 심사위원 A는 "불가"로 수정후 재투고를, 심사위원 B는 "조건부"로 심사하였음. 의견상으로는 평가자 간 차이가 많아 보이지 않지만, 심사위원 A는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관계로 높은 기준을 적용했고, 심사위원 B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이러한 경우는 저자가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 수정 후 재투고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임. 그렇지 않은 경우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자의 몫이 됨.

### 전체 소감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심사위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은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으나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심사위원의 특징에 다른 차이를 몇 가지 언급하면

첫째, 젊은 심사위원일수록 의욕적이고 엄격한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잘 활용하면 논문의 질을 높이고 peer review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다.

둘째, 늘 언급되지만 논문이 심사위원 자신의 전문분야와 일치되면 매우 적극적인 심사를 하며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도 잘 활용하면 논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아직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심사위원의 일시적인 실수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

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결 론

편집위원들은 전문분야의 심사위원에 대한 추천을 늘 신중히 해야겠다.

심사위원과 저자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은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이다.

### 대 책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신참 심사위원인 경우 논문 심사 방법에 대한 workshop 등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 Section 9. 사외정신의학분야

Period : 2002~2005

Total No. of Articles reviewed : 38

Social & Cultural Psychiatry : 17

Community Psychiatry : 21

Reviewers : 23 persons

University Staffs : 16

General or Mental Hospital Staffs : 7

### 심사결과

평균 불가 판정률 38편 중 12편 : 31.5%

불가판정률 범위 : 0~50%

Reviewer 1인당 심사 논문 수

- 2002년~2003년

23편을 기준으로 최소 46회의 심사

9인 심사위원 : 평균 5.11회

3개의 논문 : 3명의 Reviewer

- 2004~2005년

15편을 기준으로 36회의 심사

현 6인 심사위원(이영문, 남정현, 서동우, 황태연, 홍진표, 박종익 : 평균 3.5회)

### 중 합

심사위원 Review 편수와 분포 적절

평균 불가판정률은 무난

판정률의 심사위원간 편차가 크다.

### 고찰 및 결론

이상에서 지난 4년간의 학회지 심사평가 보고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각 연구학회의 학회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공식잡지인 “신경정신의학”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방향이라는 책임감하에 다소는 무리할 정도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난 4년간의 심사평가는 중복 심사 및 심사자연 등 부분적인 단점이 지적되긴 했지만 심사위원 한 분 한분이 책임감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자부하고 싶다.

현재 신경정신과는 Major 5과 중의 하나에 속함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major 5과에 당당히 위치하고 특히 의학의 발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가는 겸허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부는 아니겠지만 학회지가 하나의 척도로서 활용될 수 있다면 현재 KoMCI 학술지가 많이 인용하는 KoMCI 학술지에 우리는 부끄럽게도 1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우수한 훌륭한 인적 자원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다. 이러한 가능성이 용기

와 끈기 및 도전으로 펼쳐질 때 신경정신의학의 장래는 밝다고 판단된다. 다시한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학회지 “신경정신의학”이 더 좋은 학술지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며 전체 학회 회원 여러분 및 간행위원분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신경정신의학 ‘간행위원’ 팀에게 더 큰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심 단어 : 학회지(신경정신의학) · 심사평가.

### REFERENCES

- 1) 오병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발전계획: 개요. 신경정신의학 2002;41:583-584.
- 2) 남궁기, 이병욱.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단기 발전계획. 신경정신의학 2005;41:585-588.
- 3)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장기 발전계획. 신경정신의학 2002; 41:589-591.
- 4) 한상완. 학회지 발전과 평가기준. 신경정신의학 2005;41:589-591.
- 5) 황호정. SCI 저널의 선정기준. 신경정신의학 2003;42:171-177.
- 6) 임정기. Korean Journal of Radiology의 SCI-Expanded와 Medline 등재 경험. 신경정신의학 2003;42:541-543.
- 7) 이동후. Index Medicus (Medline/PubMed) 학술지 등재요건. 신경정신의학 2003;42:669-682.
- 8)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영문잡지 ‘Psychiatric Investigation’ 창간계획. 신경정신의학 2004;43:3-5.
- 9) 이덕우. 신경정신의학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및 계속평가. 신경정신의학 2004;43:148-150.
- 10) 이호영. 영문초록교정소감. 신경정신의학 2004;43:135-140.
- 11) 김동기, 한무영, 한혜리. 신경정신의학 2004;43:141-147.